



두경부암 클리닉, 다학제적협진으로 정확한 진단, 정밀한 치료 이끈다



두경부는 해부학 용어로 쉽게 이야기하면 머리와 목을 지칭하는 용어다. 쇄골 및 폐의 상부에서 두개저까지 포함하는 부위를 말하는데, 머리와 목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밀집되어있어 암도 다양한 부위에 나타난다. 두경부암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음주와 흡연율이 늘어남에 따라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두경부암은 암이 발생하는 부위가 머리, 목과 같은 중요한 신체이기 때문에 그 치료에 있어서도 정확한 치료가 필수적이다. 즉 체계적인 협진과 첨단 장비를 통한 검사, 암의 상태에 따라 세부적인 치료계획의 정확도가 필수적인 것이다.

구강암, 후두암, 인두암, 비부비동암, 갑상선암, 타액선암 등 코, 입, 목 부위에 발생하는 두경부암은 국내 암환자 발생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후두암과 구강암이 대표적이다. 두경부암은 대부분 편평상피세포암종으로 침습성이 강하고 국소성이 높다. 머리와 목에 밀집되어있었다보니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암의 치료과정에 있어서 미용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두경부암은 다른 암에 비해 치료가 어렵고 그 기간 또한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다학제적 협진을 통해 정확한 진

단과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다면 완치율을 높이고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도 있다.

두경부암 중에 가장 대표적인 후두암은 주로 갑자기 변한 쉼 목소리로 인해 발견된다. 후두는 경부(목)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기관으로, 호흡기능과, 기도보호기능, 발성기능 등을 담당한다. 이곳에 생기는 후두암은 주로 흡연과 음주가 원인이며, 두경부암 중에서 갑상선암 다음으로 발병빈도가 높다. 주로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여성의 흡연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쉼 목소리가 나타난 뒤 2주 이상 지속되고 목 구멍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음식을 삼키기 불편하다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후두암의 초기 증상들을 그냥 두면 암이 점차 진행되고 암이 커지면 숨길을 막게 돼 호흡곤란이 생기고 숨을 쉴 때 소리가 난다. 그 밖에 종양이 크면 기침을 할 때 가래에 피가 묻어나오거나 체중이 감소하고 구취가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심한 경우 림프절로 전이가 되어 목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다. 후두암은 후두내시경과 CT, MRI, PET CT 등의 방사선검사

2면에 계속

Contents

2p 현장을 찾아서
응급의학과 임영수 간호사



3p 헬스가이드
식도암



4p 도서정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건강에 ...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건강에 대한
진실



4p 여행정보
화진포 해양박물관



5p PHOTO NEWS
1004 DAY, 합동소방훈련



6p 독자퀴즈
다른부분찾기



언제 어디서나 Mobile 고대병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고대병원 Mobile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대병원 Mobile 사이트 - <http://m.kumc.or.kr>



KU KOREA
UNIVERSITY
ANSAN
MEDICAL CENTER

1면에 이어

로 진단할 수 있으며 경구강 레이저 후두절제술, 개방수술 등의 외과적 수술이나 방사선요법, 항암화학요법 등으로 치료한다. 조기치료가 중요하며 전이가 없는 1,2기의 조기후두암은 90% 정도의 높은 완치율을 보여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혀와 잇몸, 입천장, 혀 밑의 바닥 등 입안에 생기는 구강암은 흡연과 음주, 바이러스가 주 발병 원인이다.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 15배 높은 암 발생률을 보이며, 불결한 구강위생, 의치나 치아에 의한 자극, 편평태선, 구강의 점막화 섬유화증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인 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구강암 발생이 늘고 있어 예방이 강조되고 있다. 호전되지 않는 구강통증 및 인후통이 있거나, 입안에 혹이 만져지고 궤양이 발생하여 2주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권장된다. 조직검사와 방사선검사를 통해 진단하며 조기암의 경우 90%이상이 5년이상 생존하는 등 조기에 진단될수록 예후가 좋다. 암이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어 광범위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미용적, 기능적 목적으로 이식재건, 성형수술이 추가로 필요하며 치료후에도 재발유무를 관찰해야한다.

구강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설암이다. 혀에 생기는 암으로, 혀에 궤양을 만들고 통증이 심하며 혀의 운동장애가 와서 식사장애와 언어장애를 초래하고 조직이 괴사되면서 불쾌한 입 냄새를 풍기게 된다. 외과적 치료로 발생부위를 절제하는 것이 기본인데, 암이 진행된 뒤에는 하악골과 경부의 림프절까지 절제해야하는 경우도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설암은 다른 암에 비해 조기에 전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약 혀의 측면에 궤양이나 하얀 색을 띠는 백반증이 보이면 즉시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다.

두경부 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수술·방사선치료·항암치료 등 세 가지 치료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들을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2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한다. 두경부암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암을 완전히 없애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지만, 구강과 혀, 후두의 중요한 기능인 목소리를 보존하는 것 또한 치료 후 환자의 삶의 질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 두경부암클리닉의 권순영 교수(이비인후과)는 “두경부암의 치료는 크게 암을 치료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에게 암 치료 이후의 삶도 보장하느냐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재발이 높은 두경부암의 특성상 한 번의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실시되어야 하며, 협진시스템은 이런 치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구강암과 설암의 경우는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발율이 높은 만큼 진단, 치료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일 진료과에서 진단하기 보다는 협진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정확하고 확실한 치료효과를 위해 외과적 치료와 더불어 방사선 암치료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방사선 암치료기 래피드아크는 영상유도치료, 회전세기조절치료 뿐만 아니라 환자의 호흡까지 고려한 4차원 방사선치료, 정위적 방사선 치료가 가능해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 정상조직에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치료시스템으로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

방사선종양학과 윤원섭 교수는 “래피드아크는 치료시간과 방사선 조사량을 줄일 뿐 아니라 침샘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고령자들의 경우 부작용 때문에 방사선 암치료가 힘든 경우가 있었지만, 래피드아크의 도입을 통해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안산병원 두경부암 클리닉에서는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의 수술적치료와 종양혈액내과의 항암약물치료,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치료, 영상의학과 CT 등 영상진단, 성형외과의 재건수술, 병리과의 조직학적 진단 등 다양한 임상과의 협진을 통해 환자의 진단과 수술, 치료, 재활까지 고려한 다학제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암의 진단과 치료는 물론 재활과 성형 등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침단시스템을 갖춘 음성검사실을 개소해 수술 후 목소리의 변화에 대한 관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환자중심의 프로세스를 마련해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장을 찾아서

'그의 정신을 본받고 싶다' - 응급의학과 임영수 간호사



고려대 안산병원 응급의학과 임영수 간호사가 지난 9월 4~6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골수를 기증했다. 임영수 간호사는 어렸을 적부터 헌혈에 관심이 많아 헌혈의 집에서 자주 헌혈을 했으며 그런 관심으로 지난 2011년 5월 적십자 혈액관리 본부를 통해 조혈모 세포 기증 등록을 하게 됐다. 등록 후 2년이 지난 2013년 5월,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골수채혈을 결심하고 골수기증을 통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게 됐다.

임영수 간호사는 '힘든 교대 근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많지만 이렇게 타인을 위해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기쁘고 고맙다'며, '특히 이번 골수 기증은 부모님과 응급실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골수 기증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 거창한 일을 한 것처럼 알려지게 되어 부끄럽다고 말하여 우리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했다. 앞으로도 환자를 대할 때나 병원 직원들을 대할 때도 생명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간호사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주변장기로 순식간에 전이 '참 고약한 식도암'

담배, 술, 자극적인 음식 등 가장 큰 발생원인
여자보다 남자에게 '10배 이상' 많이 생겨
음식 섭취 힘들다 싶으면 빨리 병원 찾아야



우리 몸에 생기는 암 중에서도 식도암은 가장 고약한 암 중 하나다. 식도는 위나 대장과 달리 장간막에 싸여 있지 않아 주위로 쉽게 퍼지고 식도주변에 임파선이 매우 발달돼 있어 암 세포가 빠르게 주변장기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식도암이 무서운 것은 이미 발견됐을 때는 상당히 암이 퍼져 손을 대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에 전문의들은 무엇보다 조기발견을 강조한다. 식도암에 생긴 암 세포가 주변장기인 심장과 대동맥 등으로 전이될 경우 제거가 불가능해 조기발견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

남성에게 많아...흡연 담배 등 주원인

식도암은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음주량이 많은 사람, 과거 양젓물을 잘못 먹어 부식성식도염이 있었던 사람에게서 발병 빈도가 높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도암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10배 이상 많이 생기

기 때문에 식생활습관이 식도암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큰 발병 원인은 담배, 술, 맵고 뜨거운 자극적인 음식 등이다. 대개 환자는 음식을 삼키기 힘든 증상이있을 후 1~2개월 내에 병원을 찾게 된다. 식도암은 식도 안을 빙빙 돌아가며 자라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된밥이 안 넘어가다가 차차 죽, 미음, 물까지도 삼키기 어렵게 된다. 식도암에 걸린 환자는 1~2개월 내에 심한 체중감소 빈혈 등을 보여 환자나 가족들은 빠른 병세 진행에 놀라게 된다. 만일 음식은 내려가지만 어쩔지 기분이 언짢고 빨리 삼키려면 사례가 자주 들리거나 음식이 걸리는 것 같고 목구멍에 뭔가 걸려 있는 기분이 들며 목구멍 주변에 경련이 오고 최근 체중감소가 눈에 띄는 정도면 속히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고려대 안산병원 소화기내과 김승영교수는 '사실 식도암은 초기증상이 없기 때문에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울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됐을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

간단한 검사로 진단...정기검진 최선

하지만 음식을 삼키기 힘들 정도로 암이 자라나기 전에는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해 무시코 지나는 사람이 대다수다. 수술 5년 후 생존율이 50% 정도지만 다른 장기로 암이 확산되거나 여러 림프절로 전이된 환자의 경우 수술 후 1~2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도암은 내시경검사나 방사선검사로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특히 내시경검사는 극히 초기암인 경우에도 색깔이나 모양을 보고 찾아 낼 수 있어 효과적이다. 또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이 가능해 우선적으로 추천되고 있다.

금연 절주...식습관 개선해야 예방가능

식도암치료에는 외과요법, 방사선요법, 화학요법(항암제치료)이 있다. 이 밖에도 일부 병원에서는 온열요법이나 면역요법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외과수술이 식도암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절제된 식도를 대신해 음식물을 보내줄 새로운 통로를 재건하는 수술로, 대개 위나 장을 잘라 식도대용으로 사용하는 식도재건술을 실시한다. 하지만 일정부분 암이 진행된 경우 외과요법과 방사선요법, 화학요법을 서로 조합해 각각의 특징을 살린 복합치료를 실시한다.

식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 절주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삼가는 등 식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흡연이나 과음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식도암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구강 인후 후두암에도 걸릴 위험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맵고 뜨겁고 신 음식 위주의 식습관도 식도벽을 자극해 암 발병률을 높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부드러운 담백한 음식이나 황녹색의 신선한 채소, 과일위주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흡연 음주 50대 이상 남성, 매년 내시경검사 받아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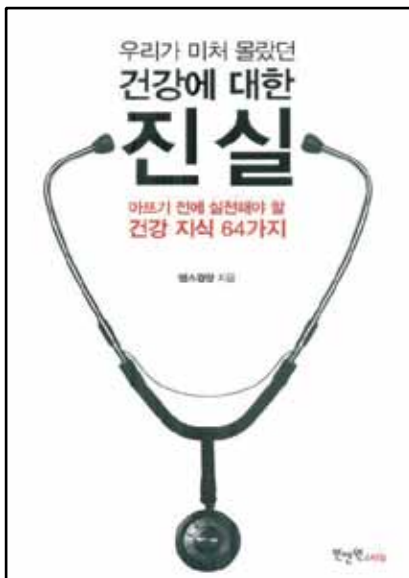
고려대 안산병원은 식도암 치료와 관련 내시경시술, 외과수술, 방사선치료, 화학요법(항암제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전개하고 있다. 국내 식도암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애쓰고 있는 김승영 교수는 '식도암의 경우 가슴을 열고 수술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지만 수술로 암 제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할 것인지, 방사선치료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각 과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식도암 진단 후 병변의 위치, 전이되어있는 정도나 치료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안산병원에서는 점막에 머물러 있는 암의 경우 수술 없이 내시경을 통해 점막을 절제하는 내시경적점막절제술(EMR)을 실시하는 등 환자의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암으로 좁아진 부분의 식도에 관(스텐트)을 넣어 고정시켜 먹은 음식이 자연스럽게 위까지 내려가게 하는 방법도 시술하고 있다. 외과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제된 식도를 대신해 음식물을 보내줄 새로운 통로를 재건하는 식도재건술도 시행한다. 이때는 대개 위나 장을 잘라 식도 대용으로 사용한다. 김 교수는 '식도암의 경우 초기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흡연과 음주를 즐겨하는 50대 이상 남성의 경우 1년에 한번 내시경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도움말 | 소화기내과 김승영 교수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건강에 대한 진실

아프기 전에 실천해야 할 건강 지식 64가지



헬스경향 지음
원앤원스타일(소울메이트)
출간일 : 2013년 09월 17일
ISBN : 9788960603011
페이지수 : 336쪽
판형 : 신국판(152x225)

건강이 인생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시대다. 그럴수록 건강에 관한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어떻게 하면 백세시대에 건강을 유지하며 오래 살 수 있을까? 갑자기 자녀가 통증을 호소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쉽고 편리한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건강정보가 정말 사실일까? 건강에 관한 궁금증은 학업 스트레스, 수면장애, 노안, 코골이, 만성피로 등 일상에서 쉽게 겪는 질환에

서부터 뇌졸중, 자궁근종, 쇼그렌증후군, 협심증, 크론병, 자궁경부암 등 한 번 발병하면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질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 책은 각 분야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하고도 객관적인 질병 예방법과 해결책을 동시에 제시한다. 별도로 구성된 'One point lesson for health'에서는 체질별 음주법, 남성 갱년기 자가 진단 방법, 직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뇌졸중을 예방하는 10가지 수칙 등 실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지식을 제공한다.

64개 주제를 7개 파트로 나누어 구성했다. 1장 '평생 건강, 지키는 방법은 따로 있다'에서는 1년 건강계획을 세우는 방법에서부터 면역력 증가, 비만·고혈압 등 평생 건강을 위한 정보를 담았다. 2장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는 노하우 8가지'에서는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해지는 비결, 걸음의 건강학 등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쉽고 편리한 방법을 소개한다. 3장 '질환이 있으면 해결책도 반드시 있다'에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갱년기, 나이가 들면 겪게 되는 노안 등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질환의 발생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4장 '우리가 잘못 아는 건강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7가지'에서는 객관적인 검증 없이 전해져 오는 건강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어본다. 5장 '아프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건강 상식 10가지'에서는 영양제 섭취, 식단 관리 등 질병 예방법에 관해 전한다. 6장 '우리 아이 건강을 지키는 필수 지식 8가지'에서는 ADHD, 학습장애 등 자녀가 아플 때 손쓸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7장 '알면서도 잘 모르는 질환에 대한 이야기 13가지'에서는 월경전증후군, 과민성장증후군 등 평소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확하지 않았던 건강정보를 올바르게 잡아 전한다. 📖

희귀 어패류가 한 곳에 모였다

화진포 해양박물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화진포 관광지구 내에 위치한 화진포 해양박물관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각종 조개류, 갑각류, 산호류, 화석류, 박제 등 1,500여종 40,000여 점을 전시한 패류박물관과, 각종 수조에 수중생물 125종 3,000여 마리를 각각의 서식 환경과 컨셉에 따라 보여주는 어류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곳의 1층 어류전시관에는 180도 머리 위를 휘감는 해저터널이 갖춰져 있다. 얼핏보면 크지 않은 규모에 실망 할지 모르지만 입장료를 생각하면 이 정도면 훌륭하다. 또한 각종 패류와 어류박물관에도 볼거리가 많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하다. 4층 전망대에서는 전망 망원경이 설치되어 멀리 동해바다 수평선과 김일성 별장 등을 조망할 수 있으며, 탁 트인 전망대에서 한 눈에 바라보는 화진포해변과 화진포호수가 아름답다. '동해'하면 '해수욕장'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동해에 들릴 일이 있다면 화진포 해양박물관에서 시원한 바다를 보고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 매우 좋을 것이다. 📖

글·사진 | 원내기자 박준우(시설팀)

화진포 해양박물관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94-1

관람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동절기는 5시)

문의전화 : 033-682-7300

안산병원 천사들과 함께! 1004Day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간호부(실장 김정숙)는 지난 10월 4일(금) 각종 나눔 봉사 활동과 행복을 선사하는 1004 DAY 행사를 펼쳤다. 1004DAY란, 간호사회에서 매년 10월 4일을 1004 DAY로 지정하고 간호사들이 환자, 보호자 및 내원객과 소외받고 돌봄이 필요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는 날이다. '건강한 삶은 간호사와 함께 - 당신의 혈당은 안전하십니까?'라는 기획주제로 실시된 고려대 안산병원의 이번 1004DAY에는 외래환자 및 방문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



2013년 합동 소방훈련 실시

지난 10월 15일 오후 1시 30분에 '2013년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병원 자위 소방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자위소방대의 소방능력 배양 및 실제 훈련을 통한 개인별 임무숙지,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신고 및 연락체계 점검, 유기적인 협조 및 역할분담 정립, 화재 및 재난 수습능력제고 등을 위해 실시됐다. 훈련은 고대 안산병원 직장자위소방대와 안산소방서의 합동으로, 초기 진화조의 공조체제 및 초기 진압태세를 확립함과 동시에 가상화재발생, 경보전파, 대피훈련, 초기 진화조 활동(소화기 및 소화전 이용), 환자 구조 등으로 진행됐다. 📖



언론에 비친 안산병원

2013년 8 ~ 9월

일 간 지

- 열사병(Heat Stroke), 죽음까지 부른다 - 응급의학과 조한진 교수 - 헤럴드경제 - 8월 12일
- 관객은 왜 '감염 재난영화'에 열광할까 - 정신건강의학과 윤호경 교수 - 서울경제 - 8월 16일
- 수면장애 10명중 6~7명은 고민많은 50대이상 -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 - 매일경제 - 8월 19일
- 여름철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라면 - 피부과 김일환 교수 - 중앙일보 - 8월 20일
- 몸에 좋다? 나쁘다?... 커피의 진실 -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 - 세계일보 - 8월 26일
- 폭탄주와 한가지술 중 어떤게 더 해로울까? -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 - 세계일보 - 9월 1일
- 나이에서 일곱살 빠라... '6075 新중년' 출현 -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 - 조선일보 - 9월 9일
- 주변장기로 순식간에 전이 '참 고약한 암' - 소화기내과 김승영 교수 - 경향신문 - 9월 12일
- 행복 호르몬 분비 줄어드는 가을철 - 정신건강의학과 김용구 교수 - 중앙일보 - 9월 15일
- 과음 · 과식 · 과로 조심 '건강한 추석' - 재활의학과 김동휘 교수 - 국민일보 - 9월 16일
- 잠 잘 못자면 자살 · 치매 위험 2배 -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 - 조선일보 - 9월 23일
- 구강성교가 구강암 발생률을 높인다? - 이비인후과 권순영 교수 - 조선일보 - 9월 28일

방 송

- 해외여행지 茶, 농약 · 중금속 '범벅' - 직업환경의학과 김대성 교수 - TV조선 뉴스 - 8월 8일
- 수면건강 - 이비인후과 최지호 교수 - KBS 라디오주치의 - 8월 20일
- 비호지킨림프종 - 종양혈액내과 이세련 교수 - MBC 지금은라디오시대 - 8월 29일
- 임신부의 생활습관 - 산부인과 김해중 교수 - YTN 뉴스 - 8월 31일
- 젊어진 6075세대 신중년 -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 - 채널A 뉴스 - 9월 9일
- 기흉 - 흉부외과 황진욱 교수 - KBS 라디오주치의 - 9월 10일
- 간 이식 - 소화기내과 서상준 교수 - MBC 지금은라디오시대 - 9월 12일
- 안면골절 - 성형외과 동은상 교수 - KBS 청소년기획-위기의아이들 - 9월 14일
- 우울증과 스트레스 -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 - KBS 비타민 - 9월 18일
- 주말 · 연휴만 되면 '밀린 잠 몰아자기' -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 - 채널A 뉴스 - 9월 21일
- 명절증후군 -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 - 채널A, 한빛방송 뉴스 - 9월 21일
- 제대로 못 자면 우울증, 치매 위험 -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 - YTN 사이언스 뉴스 - 9월 24일

독자퀴즈! 다른부분찾기



지난호 정답



두 사진에서 다른 부분(총 7군데)을 모두 찾으시고 홍보팀에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소속:

전화번호:

직종:

가장 좋았던 기사 또는 코너는?

성명:

독자의 목소리

고려대 안산병원, 첨단의료기기연구센터와 MOU 체결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이상우)은 지난 9월 23일 오후 2시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분원 회의실에서 한국전기연구원 첨단의료기기 연구센터(센터장 김관호)와 <공동연구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상우 원장, 송태진 연구부원장, 차상훈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장, 김관호 한국전기연구원 첨단의료기기 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

행된 이날 MOU체결을 통해 향후 양기관은 △첨단의료기기 개발 관련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세미나,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 및 초청강연회, 연구발표회 등 정보 교류 △응답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양 기관 피교육생, 연구인력간의 인적교류 △산하 연구기관 및 유관 기업체 등과의 다자간 연구, 기술개발 확대 추진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 분야 공동추진 등의 내용으로 공동연구 및 의료기기 개발에 협력하기로 하고 첫 공동 프로젝트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기술개발 신규지원 과제에 함께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상우 원장은 “의료기기 개발 노하우와 임상 의료기술이 접목된 활발한 연구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전기와 에너지를 이용한 진단, 치료장비를 비롯해 U헬스케어 등 의료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호 센터장은 “우수한 임상연구를 쏟아내고 있는 고려대 안산병원과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양 기관의 연구인력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첨단의료기기연구센터는 전기에너지 제어 기술을 임상적 의료기술에 접목하여 인체 내·외부의 병변을 진단 및 치료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 단층촬영(CT), 국산 리니악 개발 등 IT BT NT기술을 융복합시킨 첨단 의료기기들을 연구, 개발하며 국내 유수의 의료기기 관련업체와 네트워크된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걸으며 소통하며’



안산병원 간호부는 내부고객간의 화합을 위한 간호활동으로 9월 7일(토)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안산 갈대 습지공원에서 ‘걸으며 소통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약 200여명의 간호부 직원이 뽀롱뽀롱아리팀, 중대백로팀, 되지빠귀팀(철새 이름) 세팀으로 나뉘어 안산 갈대 습지

공원을 산책하며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박정호 진료부원장은 “간호부 직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화합의 장을 자주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며, 김정숙 간호부장은 내부고객간의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간호사는 “오랜만에 동료, 선배들과 병원 밖으로 나와 산책도 하며 평소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기쁘다”라고 감회를 표현했다. 📌

심장질환 미리미리 예방하세요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부터 본관 2층 대강당에서 한국심장재단(이사장 조범구)의 후원으로 ‘심장병 강좌 및 무료진료’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강좌는 이상우 병원장과 조범구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고혈압의 진단, 치료 및 예

방(순환기내과 김용현 교수), ▶심장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흉부외과 신재승 교수)의 건강강좌를 통해 심장질환의 정보를 심장질환자 및 보호자, 일반인들에게 제공했다. 강좌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고혈압 및 심장질환에 대한 참석자들의 궁금증도 풀어주었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체지방검사, 심전도검사를 무료 진료로 실시하고, 이상 소견이 발견된 2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는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상우 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심장재단과 행사에 참석하시고 도움을 주신 재단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 개최되는 심장병 강좌와 무료진료를 통해 심장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끝전성금모아 이웃사랑실천



안산병원은 지난 9월 9일 교직원들이 1년동안 모아온 ‘끝전성금’으로 마련된 쌀 200포(10kg)를 안산시청에 전달했다. ‘끝전성금’이란 안산병원 교직원들의 월 급여 중 1,000원 미만의 액수를 기부하는 새로운 나눔 문화로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달한 사랑의 쌀은 안산시가 경기사회

비뇨기와 배재현 교수팀, 우수논문상 수상



비뇨기와 배재현 교수 연구팀이 대한배뇨장애평가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지난 9월 28일 부산 BEXCO에서 열린 ‘제18차 대한배뇨장애평가학회 학술대회’에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비뇨기와 배재현, 박재영, 최훈, 심지성 교수와 순천향대학병원 김재현 교수로 이뤄진 연구팀의 논문 ‘Free Prostate-Specific Antigen Provides More Precise Data on Benign Prostate Volume Than Total Prostate-Specific Antigen in Korean Population’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임상부문 우수논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고려대 안산병원 비뇨기과에서는 많은 SCI 논문을 발표해 왔으며 이번 우수논문상 수상을 통해 뛰어난 연구역량을 공인받았다. 📌

가정의학과, 전공의 우수논문상과 학술상 동일병원 동시 수상



가정의학과(과장 김도훈)는 지난 10월 11일~13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3년도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과 전공의 우수논문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학술상을 받은 김도훈 교수는 ‘한국 성인에서 식사속도와 심혈관대사 위험요인과의 관련성; Eating rate is associated with cardiometabolic risk factors in Korean adults’라는 연구결과 발표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또한 전공의 우수논문상을 받은 김재우(가정의학과 전공의 3년)전공의는 ‘비만하지 않은 한국성인에서 혈장 페리틴과 대사적 건강상태와의 관련성; The relationship between serum ferritin levels and metabolic unhealthy status (MuHS) in non-obese Korean adults’라는 주제로 이번 상을 수상했다. 📌

2013 의료 표준화(CP) 중간보고회 성료



적정진료관리팀은 지난 8월 28일 오후 3시부터 ‘2013 CP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상우 병원장과 김정숙 간호실장, 임동준 적정진료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약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중간보고회는 ▶이상우 병원장의 축사, ▶임동준 적정진료위원장의 CP 개발경과 및 향후계획 ▶5개 팀의 발표 ▶이상우 병원장, 김정숙 간호실장 총평 순으로 진행되어졌다. 이날 발표에는 ▷대장항문외과 지용배 교수(충수절제술, 치질수술), ▷상부위장관외과 김중환 교수(탈장수술), ▷산부인과 김태현 전공의(제왕절제술, 자궁적출술), ▷안과 엄영섭 교수(백내장수술), ▷이비인후과 염건희 전공의(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로 발표로 이루어 졌다. 한편, CP(Critical Pathway)는 치료의 전 과정 또는 일부 과정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치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치료의 절차 서식이며, 고려대 안산병원은 CP개발을 통해 의료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마련하고 의료진간 혹은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등 궁극적인 의료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

